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에 加點된 字音注의 一端面

— 通攝에 보이는 吳音의 傳承을 중심으로

宋在漢*

I. 들어가며

II.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와
선행연구

III.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의 字音注
양상

IV.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는 日本 中近世 시기 佛家 讀誦音의 宗派간 차이를 기록한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의 字音 中 通攝에 속한 글자들을 대상으로 吳音의 學習 傳承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최근 논의에서 吳音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重層性」에 대해 中古音의 수용 시기 이외에 宗派간에 傳承된 「變容」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의 通攝에 해당하는 글자를 佛典 자료 및 韻鏡類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東冬韻과 東鍾韻에 보이는 字音 양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宗派간 長短音의 混在이다. 이는 通攝의 鼻音韻尾 -ŋ을 諸宗派에 있어서 어떻게 수용하고 傳承하는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3等韻의 경우 讀誦音은 長音を 유지하는 반면 韻鏡類에서는 漢音의 長音を 의식하여 短音を 吳音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長短音의 混在와 함께 中古音과 清濁이 일치하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용례는 佛典 讀誦音에서 散見되는 것으로 宗派간 傳承이 다르며 『補忘記』에도 잘 드러나 있다.

* 松峴高等學校 日本語教師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는 吳音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字音의 變容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變容은 共時的으로는 이미 宗派 혹은 流派에 따라 그리고 經文의 어휘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정해진 표기 형식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산발적 혹은 편향적인 경향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中近世에 있어서의 吳音 傳承의 一端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서 파생되는 諸問題를 位相論적 관점에서 漢字音史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南北相違集, 南北相違抄, 補忘記, 變容, 宗派간 位相差, 吳音의 傳承

I. 들어가며

吳音은 漢音에 비해 過渡期적이며 流派간의 傳承性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吳音의 특질로서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 過渡期적이라는 것은 소위 母胎가 되는 中古音의 시기적 특징을 말한다. 吳音은 中國의 六祖期 方音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며, 지금까지의 논의들도 주로 이 점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韓國漢字音과 함께 中古音 再構에 있어 日本漢字音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古音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中古音의 반영만으로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특히 中古音에 대한 再構가 학자마다 ‘十人十色’일 정도로 다양하다는 점도 검증의 客觀性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近間の 논의에서 「法華經字音學」에서 발견되는 吳音의 變容에 대해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그 중 宗派간 讀誦音의 차이가 吳音의 重層性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임을 지적하였고, 더불어 中古音과 清濁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6가지로 세분화하였다.¹⁾ 이러한 연구 배경에는 讀誦音의 變容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吳音 수용의 시기적 요인 이외에 宗派간 讀誦音의 位相差에 대한 검토가 吳音 연구의 한 범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식은 다음의 논의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본고의 의도와 궤를 같이한다.²⁾

(前略) いわば、字音の位相論的アプローチは、就中に、我が中古・中世の所謂吳音を考えるのに不可避であると思われる。所謂吳音は、漢音に比べて体系付け難いとされるが、それは一つは、吳音が我が国では漢音よりは過渡期的であるのと、今一つは、ここに云う流派毎の傳承性がそれと絡み合うところに由来すると云えるからであろう。(中略) 或いは予想としては、吳音に二重形(二つの音形)が認められるのは、中國語音史の面における影響は当然として、それに我が各流派の傳承音の複數性が關係はしないであろうかとも思われるのである。

1) 宋在漢, 「日本 近世 시기 法華經字音學에 있어서의 韻書 인용과 清濁 變容의 문제-唇音 全清・次清字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참조.

2) 高松政雄, 『日本漢字音の研究』, 風間書房, 1982, 427~428면.

日本漢字음을 언제, 누가, 어떤 字音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愚問일 것이다. 그러나 수용 당시의 모습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정착되어 왔다는 것은 漢字音으로서의 吳音이 일본어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變容이라 할 수 있다. 吳音의 수용 주체는 주로 佛家였기 때문에 宗派 혹은 流派에 있어서의 變容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아쉽게도 이 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볼 수 없다.

한편 吳音자료에 보이는 漢音의 혼입도 吳音의 重層性を 나타내는 원인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佛典 讀誦音を 漢音으로 읽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³⁾

(前略) 經音は、わが国では初期には南方音すなわち吳音系でよまれ、桓武天皇のころには、『法華』『金光明』の二經は漢音で読むことを命ぜられたことがあった。今日にのこる一部の經典の漢音よみは当時の流れを伝えるものであろう。法華懺法の安樂行品をまじえた漢音よみもそれであろうし、南都に今も伝承される經音の漢音もそれであらうと思われる。(後略)

이처럼 吳音이 갖고 있는 重層性は 吳音 연구에 있어서 難題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宗派·流派간의 讀誦音에 대한 차이를 기록한 『南北相違集』⁴⁾을 底本으로 하여 본 자료의 吳音 양상을 살펴 보고, 『法華經』直讀자료인 『山家本』(天台宗), 『日相本』(日蓮宗) 및 法華經注釋書『法華經山家本裏書』『法華經隨音句』『法華經音義補闕』등과의 비교를 통해 吳音의 傳承에 따른 受容과 變容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⁵⁾

3) 兜木正亨, 『法華版經の研究』, 兜木正亨著作集 第1卷, 大東出版社, 1982, 202면.

4) 본고에서 사용한 底本에 대해 심사자의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 필자는 上野和昭(2016)의 影印자료를 底本으로 삼고 있고, 上野는 논문 서두에서 築島裕가 藥師寺本을 實見하고 제시한 사진과 비교하여 동일 版本이 틀림없다고 했으나, 築島裕에 의하면 藥師寺本은 上下二冊으로 上野는 이 부분에 의문이 간다고 했다. 즉 上野의 影印은 藥師寺本과 달리 一冊이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뒷 부분의 언급을 오해하여 藥師寺本과 동일 版本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底本은 심사자의 의견과 같이 藥師寺藏本과 동일하다고 추정되는 「上野氏個人藏 元祿12年(1699) 序刊木版本」(이하 上野本으로 略稱)임을 밝혀 두며, 지면을 빌어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한편 본고에서 이 影印을 底本으로 한 것은 版本이기 때문에 字音点이나 聲點, 본문의 漢字 등이 寫本에 비해 비교적 판독이 용이하며, 게출자 항목이 151條(京大本 148條, 東寺本 85條, 大谷大本 82條 등)로 다른 자료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Ⅱ.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와 선행연구

우선 宗派·流派간 讀誦音의 차이는 日蓮宗의 日遠『法華經隨音句』(1634)·日相『法華經音義補闕』(1698), 天台宗의 宗淵『法華經山家本裏書』(1840) 등에 기록된 字音觀을 통해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南北相違集』을 통해서도 그 實狀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相違集』은 국내에서 吳音 자료 혹은 연구로 소개된 것은 管見의 범위에서는 없으며, 일본에서도 『南北相違集』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南北相違集』의 書名은 「南北相違抄」「南北音義抄」라고도 하며, 본고에서 底本으로 한 藥師寺本の 경우 外題는 『南北相違集 諸經コミクセ』이지만 内題는 「南北音義抄」로 되어 있다. 이하 본고의 내용에서는 편의상 『南北相違抄』로 통일하며 경우에 따라 「본 자료」라 나타내기로 한다.⁶⁾

이 자료에 대한 선행연구 중 高松政雄는 본 자료의 검토에 앞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필요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⁷⁾

(前略) 点本に依る字音研究はなお多くの課題を有しているかに見えるが、本論ではそれに触れることを主題とはしない。ここでは、右の後者に依る研究の、その一段を取扱おうとする。管見では、主に中世以降に、字音の位相論的記載に偶々出くわすことがあるが、その専書となると、身、不明にして、余り存知しないのである。如何なる所で、如何程の範囲内で、そういう資料が存するかは今後心掛けて行きたいと思うが、今はその中の一書、『南北相違抄』について、

5) 兜木正亨(1982:348)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つぎに、法華經の序品第一から勸發品第二十八までの各品のよみ音について一見してみたい。これにも耳にきく音に清濁のもだれがあつて、何とよむのが正しいのか迷わされることがある。問題は、品題の文字が本来濁音である場合は濁音によんでまちがいはないが、いわゆる新濁音といわれる場合の、本来濁音でない文字が連声して濁音または半濁音よみにする場合があるからである。これは伝統よみ、つまりそのようによみ伝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によるかよらないかは選択の問題である。

6) 東京国立博物館藏本の 경우 外題는 「吳音漢音遣方秘伝書」, 内題는 「南北音義抄」이며 善通寺藏本은 外題와 内題 모두 「南北相違抄」로 異本마다 차이가 있다.

7) 高松政雄, 앞의 책, 428면.

考察を加えてみようと思う。この書に関しては、既に、中田祝夫博士が、「古点本の国語学的研究 總論篇」の中の一章、「ヲコト点調査によって今後新たに提起されるべき問題」で、簡単に言及されているし、また、外に、幾許かの人に依って引用されてはいるものの、まだ、その内容は十分に検討されてはいないようなのである。中田博士の論旨は、私見に甚だ示唆的であるが、本論ではまず、本文献自体の性格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主にしたい。(後略)

『南北相違抄』의 版本 및 寫本에 대해 松本光隆(1982)의 논의에서는 이 연구의 底本인 東寺觀智院藏本(室町初期) 이외에 大谷大學藏本(正保3年, 1646)・京都大学谷村文庫藏本(江戸中期)・薬師寺文庫藏本(元禄12年, 1699)이 있다고 했다.⁸⁾ 高松政雄(1982)의 논의에서는 京都大学藏本을 底本으로 하여 이 자료의 성격과 字音注 일부에 대해 언급했으며, 서론에서 京都大学本과 薬師寺文庫本 두 자료를 實見했다고 했지만 두 자료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⁹⁾ 또한 이외에 西大寺本(享保10年, 1725)과 東京国立博物館本(寛政12年, 1800)도 현존한다고 언급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南北相違集』(혹은 南北相違抄, 南北音義抄 등)으로 傳承되는 현존 자료는 東寺觀智院藏本・大谷大學藏本・京都大学谷村文庫藏本・薬師寺文庫藏本・西大寺藏本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일본의 国文学研究資料館 新日本古典籍総合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善通寺藏本(江戸中期 이후?)・竜谷大学藏本(江戸後期 이후)・唐招提寺藏本(正徳4年, 1714) 등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 중 京都大学藏本・善通寺藏本・東京国立博物館藏本은 화상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薬師寺藏本(版本, 上野本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는 寫本이다.

8) 松本光隆, 「東寺觀智院藏南北相違抄」『訓点語と訓点資料』67, 1982, 15면.

9) 高松政雄, 앞의 책, 428면. 여기에서는 京都大学本과 薬師寺本 이외의 資料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10) 京都大学貴重資料 디지털아카이브 - <https://rmda.kulib.kyoto-u.ac.jp>

国文学研究資料館 新日本古典籍総合 데이터베이스 - <https://kotenseki.nijl.ac.jp>

東京国立博物館 디지털아카이브 - <https://webarchives.tnm.jp/dlib/detail/4464>

이하 諸本の 명칭은 東寺觀智院藏本(=東寺本), 大谷大學藏本(=大谷大本), 京都大学谷村文庫藏本(=京都大本), 薬師寺藏本(=薬師寺本), 善通寺藏本(=善通寺本), 竜谷大学藏本(=龍谷大本), 唐招提寺藏本(=唐招提寺本), 東京国立博物館藏本(=東京本)으로 略稱한다.

『南北相違抄』諸本の 書寫 연대는 대부분 江戸시기이지만 刊記나 奥書の 내용에 의하면 그 원류는 鎌倉시대 이전으로 소급되며, 高松政雄의 논의를 통해 書寫 연대와 傳承 과정의 大概를 파악할 수 있다.¹¹⁾

京都大本は書誌的には、江戸中期の写本とされるが、その開卷劈頭に「延慶二年羊月二十二日 開講次隨所憶知抄之」とある。これに依って、まず延慶二年(1309)にその骨子は成ったものであらうと思われる。序でに云えば、葉師寺本にはこの記載がない。代りに、上梓の年月を記す。「于時元祿十二歲次己卯 暮春上澣 萬洛東客舍 則隱子序」として、簡単な序文が続く。(中略) 斯して、本書は、南京・北京律の音義抄であり、参考として諸宗派における傳承音の相違を教え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中略) 即ち、本書には、律宗關係の固有名詞が幾つかはつきり出るし、また、最初は北京律の方で、作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筋があるのである。(中略)

さて、斯くして成った本書は、後に刊本となったことでも分かるように、爾後、あちこちで人の目に多く触れたらしい。それには、一つには、泉涌寺が俊蒔の手に依って、元來の天台宗としての「仙遊寺」から改組、改稱されて、天台・真言・禪・淨土兼學の所となったこと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と思われる。本書に律宗以外の宗派のことが少しく見えるのも、この泉涌寺という寺院の性格の反映かも知れない。とすると、山門・寺門の相違を主とするところの、前述の如き本書の増補も、いとも簡単であつたであらう。(中略) これでは、本書が完全に南北律宗を離れて、天台宗のものになったことにあるのである。ここに至れば、最早、諸宗読癡集としての本書の意義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ろう。

高松政雄의 논의에 의하면 本書는 律宗 内の 相違에 대해 기록한 것이지만, 이후 증보를 거듭하며 여러 宗派의 相違가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諸宗에 있어서 讀音과 訓法에 차이가 있는 어휘를 南云・北云・寺云・山云 등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本書에 기재된 항목에 있어서는 南云・北云의 相違가 가장 많으며 寺云・山云의 相違가 일부 기재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 말하는 南云・北

11) 高松政雄, 앞의 책, 429~433면. 松本光隆(1982:16)에 의하면 京都大本과 大谷大本의 祖本은 동일하다고 했지만, 異本 간의 관계는 현재로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東寺本・大谷大本・京都大本의 체제 차이에 대해서는 松本光隆(1982)를 참조 바람.

云은 언뜻 「南都」(興福寺-法相宗)와 「北嶺」(延暦寺-天台宗)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異見이 보인다.

高松政雄는 본 자료의 표제 항목 등의 검토를 통해 西大寺・唐招提寺의 南京律과 泉涌寺의 北京律과의 相違를 기록한 것으로 南京律의 字音은 吳音的 또는 和音的이며, 北京律의 字音은 새로운 요소(소위 漢音形도 포함)를 상당 부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南北」의 宗派에 대해서는 松本光隆도 高松政雄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반면 築島裕는 『南北相違集』에서의 「南北」이란 것은 「南都北嶺」이 아니라 奈良의 猿澤池를 중심으로 한 「南北」을 지칭하는 것으로 南은 元興寺, 北은 興福寺를 말하며 양자 모두 法相宗의 古寺로 이들의 相違를 기록한 것이라 한 바 있다.¹²⁾

「南北」의 宗派에 대해서 南都是 法相宗, 北嶺은 天台宗이라 한다면 天台宗의 總本山인 延暦寺가 北嶺에 해당하는데 이는 山門派에 해당한다.¹³⁾ 즉 본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山云은 天台宗의 山門派에 해당하므로 山云과 寺云으로 대비되는 항목에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高松政雄의 견해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寺門派의 總本山은 三井寺이며, 본 자료의 내용에도 일부 보인다.¹⁴⁾ 한편 『南北相違集』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본에서도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橋本凝胤(1944) 「南都北嶺字音の相違に就きて」 『仏教教理史の研究』全国書房

高松政雄(1974) 「南北相違抄」 『國語國文』 43-5,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

究室 編, 『日本漢字音の研究』(1982, 風間書房)에 再録

12) 築島裕의 논의는 上野和昭(2016:18)에서 재인용하였다.

高松政雄(1982:444)는 『補忘記』序文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諸宗派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天台	南都	律家(眞言)	密宗
山門・寺門	唯識(法相)・三論・華嚴	南・北	南山・根領

13) 上野和昭, 「資料紹介『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會『論集』XI,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会(早稲田大学), 2016, 18면.

南都とは北の平安京に対する奈良であり、南京ともいう。また、興福寺を中心とする寺社勢力をも意味する。一方、北嶺とは比叡山延暦寺のこと。WEB版新纂浄土宗大辞典(<http://jodoshuzensho.jp/daijiten>) 참조. (검색일 2021.10.10)

14) 『南北相違抄』에 天台宗의 相違를 기록한 이유는 『法華經』이 일본에서는 古來로 가장 자주 읽히는 經典이며, 天台僧에 의한 기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天台 내부의 相違와 三井(寺門), 南都(法相), 山門 등과의 대비를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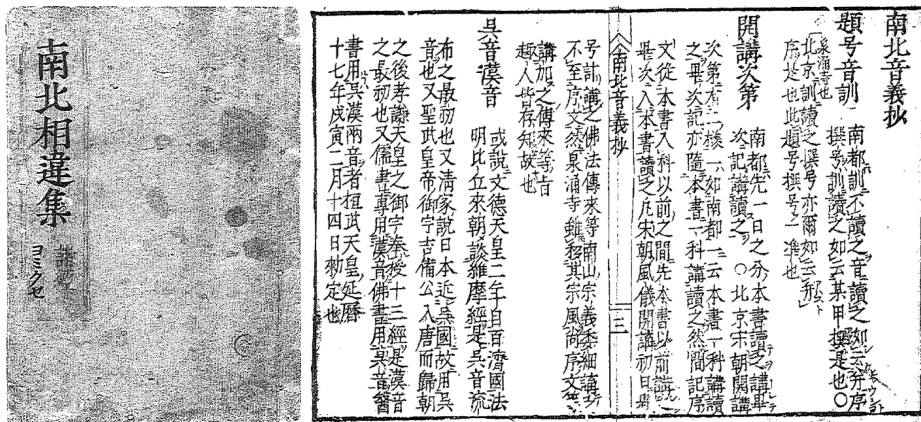
- 松本光隆(1982) 「東寺觀智院藏南北相違抄」 『訓点語と訓点資料』 第67輯, 訓点語学会
湯沢質幸(1987) 「第4章 宋音」 『唐音の研究』 勉誠社
上野和昭(2016) 《資料紹介》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 『アクセント史資料研
究會『論集』 XI,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会(早稲田大学)
大石麻衣 外(2016)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 『補忘記』元祿版 字音關係項目對照
資料」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會『論集』 XI,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会 (早
稲田大学)

위 연구 중 橋本凝胤(1944)은 필자가 입수할 수 없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했다.¹⁵⁾ 高松政雄(1974)의 논의는 위의 논문 중 본 자료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書誌와 함께 10여개의 項目을 들어 字音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松本光隆(1982)는 東寺本の 書誌와 전체 翻刻을, 上野和昭(2016)는 葉師寺本과 동일 版本으로 추정되는 架蔵本の 書誌와 影印을 게재하고 있으며 본고는 후자를 底本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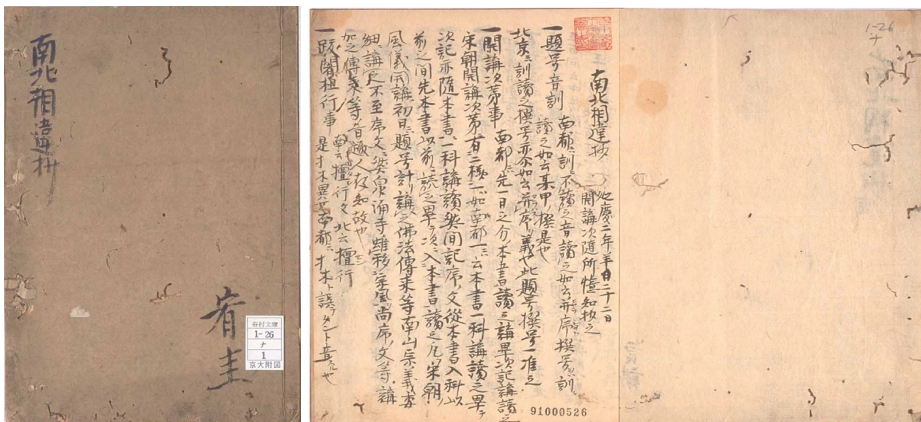
湯沢質幸(1987)에서는 『南北相違抄』에 宋音 注記가 있는 8字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高松政雄(1974)에서는 宋音이라 명시되어 있는 글자가 6字라 언급하고 있어 글자 수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은 두 연구에서 서로 다른 자료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湯沢質幸(1987)에서는 『南北相違抄』의 어떤 藏本을 참고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大石麻衣 外(2016)는 葉師寺本の 字音과 관련한 項目에 대해 『補忘記』의 내용과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字音 분석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소개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모두 『南北相違抄』의 字音 전체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 및 후속 논의를 통해 『南北相違抄』의 字音에 대해 개관하고, 吳音의 정착과정에서 보이는 宗派간의 學習 傳承과 相違를 통해 吳音의 重層的 특징의 淵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지면의 한계로 본 자료에 실려있는 글자 중 通攝에 해당하는 字音을 대상으로 다른 吳音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15) 上野和昭(2016:18)에 의하면 橋本凝胤(1944)에서는 불교전래의 경위와 字音과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 南都北嶺에 있어서 字音語義의 相違를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上野架蔵本』表紙와 3才・3ウ



『京都大本』表紙와 1面

〈그림 1〉『上野架蔵本』과 『京都大本』

Ⅲ.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의 字音注 양상

본 장에서는 『上野本』과 『山家本』 『日相本』에 加點된 字音注를 中古音 16攝을 기준으로 『韻鏡』의 체제에 따라 字音点分韻表로 작성하여 通攝 諸韻에 소속된 漢字音を 제시하고 상술한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1. 東韻1等

〈丑 1〉 東韻1等 字音点分韻表

漢字	聲母	聲調	反切	項目	南北相違集					山家本		日相本	
					南云	北云	寺云	山云	所在				
木	明	入	莫ト	木展	モク ()	モ、 宋音 ()			11オ1	モク(入) (入) モツ 方-194 方-197 嚴-43		モク(入)	方-194
通	透	平	他紅	通總			ツ()	ツウ ()	8ウ1	ツウ(去) (上新濁) 序-17 序-67		ツウ(平) ツウ(平新濁) ツウ(去) 功-37	序-17 序-67
				融通			ツウ ()		8ウ3	ツウ(上新濁) (去) 序-101 序-192			
				通教			ツウ ()	ツ()	9オ5	ツウ(上) (毘) 序-236 化-22			
獨	定	入	徒谷	天真獨朗			(入)	(入濁)	14ウ6	トク(入濁) (入濁) トッ(入濁) 序-99 方-169 譬-24		トク(入濁)	序-99
功	見	平	古紅	功用	クウ ()		ク()			ク(上) (上) (毘) ク(去) 方-201 譬-23 五-69 法-81		ク(平) (平) ク(平/上)	方-201 隨-36 功-1
空	溪	平	苦紅	空假中			クウ ()	ク()	13オ1	クウ(去) (上) (去) 序-100 序-119 譬-278		クウ(去) クウ(平) クウ(上/去)	序-100 序-119 信-9
總	精	上	作孔	通總			ゾウ ()		8ウ1	ゾウ(平) 勸-19		ゾウ(上)	勸-19

1) 木[明入/莫ト切]¹⁶⁾

「木」은 《木展》(나막신)이라는 어휘에 나타나며 上野本에서는 南云 「モク」로 加點되어 山家本・日相本과 동일하며 일반적인 吳音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北云에서는 「モ、」로 加點하고 있고 어휘 전체의 讀誦音은 「モ、キ、」로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字音은 東京本과 善通寺本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東寺本에서는 이 어휘를 「ホキ」로 加點하고 있어 일종의 韻尾가 탈락한 半音의 형태를 보이며, 聲母를 八行으로 반영한 것은 漢音의 영향으로 보인다.

16) 각 용례의 聲韻 표시는 例字[聲母聲調/反切]와 같은 순서로 제시한다. 이하 同一.

上野本 등에 반영된 「モ、」의 「、」기호는 본 자료 내에서는 이 어휘가 유일한 용례로, 「木」에 이어지는 「屐」의 표기에서도 「キ、」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부호(踊り字)나 합符 혹은 促音표기로는 보이지 않는다.¹⁷⁾ 또한 喉内入聲 표기라 하더라도 본 자료의 다른 喉内入聲字는 모두 -ク로 표기하고 있고, 이 어휘의 字音注 아래 「宋音」이라는 注記가 있는데 宋音의 喉内入聲은 대체로 韻尾가 생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モ」가 예상된다.¹⁸⁾ 본 자료에서는 이 기호가 유일한 용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능은 알 수 없지만 湯沢質幸(1987:138, 151)에서 다음과 같이 추론한 내용이 있다.

(前略) また、木屐の<宋音>の中の記号は、長音符か韻尾の短促性を示す符号かのいずれかと考えられるが、<宋音><唐音>ともにモとキを持つ点においてあい通じている。(p.138)

(前略) 中世<宋音>も現存<宋音>もともに、中世禪宗<唐音>ときわめてよく似ている。『南北相違抄』の<宋音>具體例八において、モ、はモと同じとすると、ワイ・モ・モ、を持つ各壤・磨・木は、現存<宋音>でも同じものを持つ(他は、現存<宋音>資料中に當該字がないため不明)。(p.151)

이 견해에 의하면 기능적으로는 2가지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호가 宋音과 唐音 모두 「モ」를 갖고 있으며 이는 現存의 宋音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정은 하지 않았지만 短音形 「モ」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기호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데, 이 기호가 喉内入聲字 중 이 어휘에 한정되어 있고, 「木」에 후접하는 「屐」에도 「キ、」와 같이 加點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宋音과 唐音의 字音形에서 喉内入聲은 탈락된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短促性 즉 促音의 기능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와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다. 대표적인 唐音자료인 靜嘉堂文庫藏本『聚分韻略』(室町末期寫)에 동일한 加點이 보이는데 같은 文明版『聚分韻略』및 『略韻』과 표기상 차이가 있어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 만일 「、」가 반복 부호라면 「モモ」가 되겠지만 喉内入聲 -k를 이러한 부호로 표기한 것은 管見으로는 없다.

18) 宋音자료인 『金光明懺法』『小叢林略清規』에도 「木モ」가 확인된다. 沼本克明(1997:549) 참조.

〈표 2〉 唐音(宋音)자료의 字音注 비교¹⁹⁾

	翁	蓊	洪	紅	蚣	鴻	澤
略韻	ウミン	ウミン	ウミン	ウミン	ウミン	ウミン	ウミン
文明版	ヲン	ウン	ウン	ウン	ウン	ウン	ウン
靜嘉堂本	ウゝム	ウゝム	ウゝム	ウゝム	ウゝム	ウゝム	ウゝム

『略韻』에 보이는 기호 「ゝ」는 일종의 長音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표기가 靜嘉堂本에서는 「ゝ」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ゝ」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물론 靜嘉堂本에 加點된 것과 上野本の 「ゝ」이 동일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ゝ」가 앞 글자에 연속되는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즉 의미없이 표기하지는 않았을 것) 충분히 想定되고, 宋音의 喉內入聲 표기는 생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湯沢質幸가 언급한 기능 중 長音符의 기능이 있었을 개연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上野本の 「ゝ」는 靜嘉堂本에 加點된 것과 동일한 기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北京律에 있어서 이 어휘에 한정된 특수한 讀誦音으로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東寺本에서 漢音形으로 추정되는 「ホキ」로 加點한 것과 같이 『南北相違抄』의 異本간 位相差도 일부 인정된다.

2) 通[透平/他紅切] · 功[見平/古紅切] · 空[溪平/苦紅切]

이 글자들의 字音은 長音(-uu形)과 短音(-u形) 그리고 ㉠ウ와 ㉡ウ의 混在가 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본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吳音자료에서도 보이는 일반적인 반영이다. 다만 특징적으로 牙音系에서 「ク・クウ」, 舌音系 중에서는 「通痛」만 「ツ・ツウ」(다른 글자는 トウ)가 混在한다. 본 자료에서는 용례가 적기도 하거니와 같은 漢字라도 어휘에 따라 音形이 다르기 때문에 通攝에 나타나는 長短音의 체계적인 相違는 알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각 流派의 개별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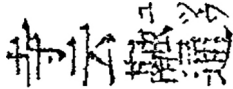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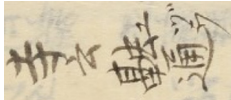
19) 湯沢質幸, 「第4章 宋音」, 『唐音の研究』, 勉誠社, 1987, 441~442면.

20) 「ゝ」의 기능에 대해 湯沢質幸(1987:440)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この上字のかなは、すべてウ列に属す。(先行母音u)
- ② この分布は、いくらかかたよっている。一等字加點音注に多く現れる。
- ③ (②にかかわって)三・四等字のそれにも現れている。ただし、一等字におけるよりも例數はずっと少ない。

언급할 수 밖에 없다.²¹⁾

「通」은 《通總·融通·通教》, 「功」은 《功用》, 「空」은 《空假中》이라는 어휘에 사용되고 있다. 分韻表를 보면 대부분 寺門과 山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寺門에서는 주로 長音, 山門에서는 短音으로 읽는 것처럼 보인다. 이 중 《融通》의 경우 본고의 底本人 上野本에서는 寺云 「通ツウ」이지만 京都大本에서는 連濁의 영향으로 「通ヅウ」로 加點되어 있어 異本간의 차이가 보인다.

上野本	京都大本
	

〈그림 2〉 「融通」의 加點例

이들 字音を 山家本(天台眞盛宗)·日相本(日蓮宗)과 비교해 보면 寺門 쪽이 兩本の 法華經 字音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南京律에서는 孤例이지만 長音으로 天台宗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通」은 《通總》의 경우 寺門에서는 「ツ」, 山門에서는 「ツウ」이지만 《通教》에서는 반대가 된다. 「功·空」도 寺門에서 「ク」와 「クウ」로 長短이 어휘에 따라 字音が 다르며 일률적이지도 않다. 高松政雄(1982:445)에 의하면 唯識(法相)은 長呼(특히 通攝), 三井(天台-寺門)의 短呼는 거의 명확한 사실이라고 있지만, <表1>로만 보면 寺門은 長音이 우세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宗派(혹은 流派)에 있어서의 混在 양상은 觀應(1656~1710)의 『補忘記』(1687)에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²²⁾(밑줄은 필자에 의함. 이하 同一).

21) 본고는 吳音에 있어서 각 聲韻의 체계적인 특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자료를 통해 보이는 吳音의 變容과 實狀을 파악하는 데 있다.

22) 觀應이 저술한 『補忘記』는 眞言宗 論義에서 難読語를 중심으로 語句를 발췌하여 讀誦습관(読み癖)이나 発音, 宗派간의 異伝 등을 기록한 것으로 貞享4(1687)年本(上下2卷)과 再訂本인 元禄8(1695)年本(天地人3卷)이 있다. 清濁과 聲點 표기 그리고 丶(높은 음)·-(낮은 음)과 같은 표기가 되어 있어 音韻史 및 일본어 악센트史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이다. 상기 예문은 貞享4(1687)年版에서 인용했다.

通^ツ教 山門ノ名目也 或彼^{コニハ}云^ツ通^ツ教^{トモ} [上14才6]

通^ツ總 三井^{ニハ}通^ツ總^ト [上14才7]

共^ツ許^ツ 許ノ字清^ク 南都^{ニハ}云^ツ共^ツ許^ト [上16ウ4]

功^ツ力。 [上17ウ3]

功^ツ能 南都^{ニハ}云^ツ功^ツ能^ト [上17ウ3]

위 내용을 보면 「通」의 字音を 山門과 三井 즉 天台宗에서는 「ツ」로 읽는다고 했다. 「共功」모두 流派와 어휘에 따라 「ク」와 「クウ」로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通痛」의 字音 混在 문제는 本居宣長(1730~1801)의 『字音假字用格』(1776)에서도 예외로 취급한 부분을 볼 수 있다.²³⁾

トウ 東棟凍同洞桐銅筒董動懂懂通痛桶 冬彤統

以上升字漢^ニ吳ハ^ツナル^ニ常ニ漢吳共ニトウト呼フ通痛ナドハつウト呼
[47ウ1~2]

本居宣長는 1等の 東韻과 冬韻에 속한 20字의 吳音은 「^ツ」이지만 항상 吳音·漢音 모두 「トウ」로 읽으며, 「通痛」은 「^ツ」로도 읽는다고 했다. 이 내용 역시 「通痛」이 吳音에서는 長短音が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에 있어서 長短音은 清濁과 함께 의미 변별에 중요한 音韻論적 특징이라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이처럼 동일한 韻에서 그리고 같은 글자에서조차 長短音が 혼재하는 원인에 대해 聲韻學의 측면에서는 설명이 어렵다. 이 점에 대해 高松政雄는 견해는 참고가 된다.²⁴⁾

23) 本居宣長가 저술한 『字音假字用格』(1776)는 일본에 전해진 漢字의 字音(吳音·漢音)을 어떤 가나(仮名)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字音假名遣い)에 대한 문제를 만요가나(萬葉假名)와 『韻鏡』의 지식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24) 高松政雄, 앞의 책, 440면.

(前略) これに対して、北京の音は所謂漢音形も含み、また、同じ呉音でも、後世云われるが如き音形での呉音なのである。例えば、通攝の字は南では長呼されるが、この北京では短呼となる。今日では、その短呼の方を一般に呉音としているが、これは多分、後に広まった現象であろう。古いところに、この短呼はないことはないが、中国原音にこれが短くなる謂れはなく、我が国で次第にそうなった(そしてやがて意識的にそうした)ものと思われるのである。

이 견해에 의하면 短音「ツ」는 일본에서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通攝의 喉内撥音韻尾를 -우로 표기하는 長音「ツウ」가 일반적이며, 聲韻學의 측면에서는 短音의「ツ」가 이질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字書인 『類聚名義抄』의 和音注 역시 「通禾ツウ^レ」만 加點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²⁵⁾ 그러나 본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吳音자료를 검토해 보더라도 長音이던 短音이던 共時的으로 양쪽의 字音が 傳承되어 온 것이 인정된다. 小倉肇(1995:483) 역시 『法華經』(音義 포함) 諸本에 加點된 字音의 분석에서 高松政雄의 논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前略) 「通痛」の「ツ」は「ツウ」の誤りと認められるが、恐らく-ũ~uũの動搖がその背景に存在しているであろう。

小倉肇는 「ツ」는 「ツウ」를 「잘못」표기한 것으로 보고, 長短音が 混在하는 것은 動搖로 간단히 설명하고는 있지만, 短音의 발생에 대한 언급은 없다.

喉内鼻音韻尾를 日本漢字音에서 수용하는 것은 다양한 형식에 의해 표현되어 왔고, 이것이 정착한 결과 지금의 -우이며, 「ツ」는 일종의 韻尾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喉内鼻音韻尾를 갖는 글자들의 中古漢語 수용과정을 언급한 논의가 있다.²⁶⁾

25) 『類聚名義抄』佛上(國立國會圖書館藏)에 의함.

26) 이 연구에서는 二卷本色葉字類少(お茶の水圖書館藏本)를 平安시대 말기~鎌倉시대 초기에 書寫한 『節用文字』(零本)을 주자료로 하고 있다. 節用文字 등을 포함한 世俗字類少나 色葉字類少 등의 諸本을 일컬어 字類少諸本이라 한다. 二戸麻砂彦(2015:187-188) 참조.

孤例ながら、-uūに対応する仮名音注がある。番號020b 「通」に付載された「ツウ」である。觀智院本類聚名義抄では和音「ツウ」があり、その右傍には喉内撥音韻尾を示す「レ」が注記されている。この字音把握を可能にした環境は、末子音である-unjの圓脣性が影響した結果、主母音-ʌが-oよりも狭められて、その末子音に同化あるいは吸収されたと推測できる。しかし、東/董/送/屋韻という同じ環境下にあるにも関わらず、頭子音tʰ-(いわゆる舌音の透母)に限って-uūと字音把握している。他の頭子音は-oū/-okで基本的に対応する。これは如何なる理由であろうか。おそらく、透母の特徴である有氣閉鎖(有氣破裂)音が主母音-ʌを-oよりも狭められた-uとして把握させた可能性がある。(中略)その一方で、番號637a・645a 「通」の仮名音注「ツ」は-ūを反映する例である。上記で掲げたように、字類抄諸本では「通家ツウケ」「通用ツウヨウ」としてある。これらの熟字だけ、なぜ長音ではない字音把握をしたか。現時点では不詳である。

위 논의는 『節用文字』의 音注에 대한 연구 중 일부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主母音의 반영에 있어서 舌音系 글자는 -ou(トウ)가 기본형이지만, 「通」이 「ツウ」로 나타나는 것은 韻尾의 圓脣성과 더불어 透母의 音聲的 환경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 沼本克明(1982:557)도 「原音が音聲上兩方に聞き取れるような性格のものであったためと思われる。」라고 한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ツケ}通家」「^{ツヨウ}通用」이라는 어휘에서만 短音인 「ツ」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보하고 있다.

필자는 主母音의 音聲的인 견해에 대해 같은 韻의 見母(全清)에서도 長短音이 混在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다. 한편 通攝의 長短音 混在을 拍의 관점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다.²⁷⁾

(前略) 吳音의 세 가지 字音形 중에서 衞이 新舊를 구분하자면 1拍의 -u형이 가장 古層에 속하고 그 다음이 -uu형, 漢音과 동형인 -ou형이 가장 新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南北朝時代音을 받아들이더라도 原音에서의 母音間 결합 정도와 日本人의 拍에 관련된 受容態度 여하에 따라 字音形이 달라질 수

27) 이경철, 「日本漢字音의 字音形에 나타나는 拍의 關與에 대해서」, 『日本語學研究』 25, 2009, 13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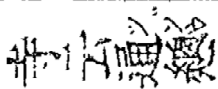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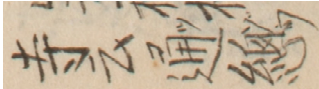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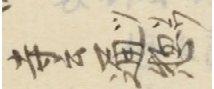
는 것이다.

이 견해는 高松政雄나 小倉肇 등의 논의에 의하면 상반되는 내용으로 通時的 관점에서 1拍의 字音が 보다 오래된 것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日本漢字音史에 있어서 韻尾가 생략된 字音群을 의식한 것으로 소위 古吳音(혹은 古音)까지 고려한 견해로 해석된다. 그러나 만요가나(万葉仮名) 층을 벗어난 吳音자료에서는 두 音形이 공존한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가령 東韻1等の 경우 舌音系는 「ツウ(入聲ツク는 없음)・ツ・トウ(入聲トク)」, 牙音系는 「ク・クウ・入聲ユク(クク는 없음)」, 齒音系는 「ソウ(入聲ソク)」뿐으로 「ス・スウ・スク(入聲)」는 없다. 拍의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면 聲母와 관계없이 -u形과 -uu形이 혼재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聲母에 따라 長短音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高松政雄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 原音에서 字音が 짧아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拍에 의한 新舊보다는 수용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항목의 논의가 「ツ・ツウ」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ク・クウ」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의 내용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와 자료에 반영된 字音を 검토해 본 바, 通攝에 있어서 「ツウ」가 「ツ」보다 受容의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선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ツ」의 발생이 시기적으로 언제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상당히 이른 시기의 자료인 『節用文字』나 『類聚名義抄』 등에서도 「ツウ」를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中古音を 受容한 이후 어느 시점에서인가 「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이 宗派마다 혹은 流派마다에 있어서 특정 어휘에 어느 쪽인가 하나를 채용하여 그것을 각 宗派의 音으로 고정화한 것이 각자의 傳承音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字音が 고정된 이후 이것이 中世에 들어와 각각 독자적인 名目으로 의식되어 갔고, 정착이 완료된 傳承音은 각자의 위치를 유지했다는 점은 충분히 상정된다. 역으로 이 과정이 하나의 글자에 복수의 字音を 발생시킨 원인(吳音의 重層性を 심화)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일 어휘에 나타나는 長短音의 混在는 中古音 수용의 시기적 반영과는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일본 내 宗派 혹은 流派간 學習 傳承에 의한 字音의 變容이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3) 總[精上/作孔切]·獨[定入/徒谷切]

이 글자들은 본 자료의 加點에서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예이다. 우선 《通總》에 사용된 「總」은 寺云에서만 보이며 字音은 「ゾウ」로 濁音이다. 「總」은 全淸인 精母이므로 吳音·漢音 모두 淸音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자료의 경우 濁聲点이 加點되지 않았고 가나(假名)音注만 濁音으로 加點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으나 어휘 구조상 新濁(連濁)에 의한 濁音으로 생각된다.²⁸⁾ 다만 異本인 京都大本에서는 淸音인 ソウ(寺云은 同一)로 加點하고 있다. 그러나 淸濁의 경우 자료마다 혼동예가 散見되기 때문에 濁聲点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자료에서 《通總》의 바로 인접 항목인 《融通》에서는 「グゾウ」로 濁点을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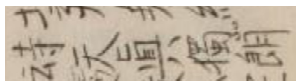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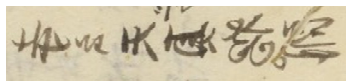
上野本	東京本	京都大本
		

〈그림 3〉「通總」의 加點例

이어서 「獨」은 全濁의 定母에 속하기 때문에 吳音에서는 濁音인 「ドク」가 일반적인 字音이다. 본 자료에서는 寺云·山云에서 보이며 가나(假名)音注 없이 聲點만 加點되어 있는데, 山云에서는 入濁(本濁)으로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定母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寺云에서는 入聲單点만 加點되어 있어 淸音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入聲單点을 加點한 것은 京都大本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東京本에서는 山云과 寺云 모두 入濁으로 加點되어 있기 때문에 東京本에서의 加點이 筆寫 과정에서 발생한 誤記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만약 東京本の 濁聲点 표기가 맞다면 山云과 寺云 모두 淸音과 濁音의 讀法이 존재했다는 것이 되지만, 현재 다른 異本에서는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28) 濁聲点의 경우 本濁은 「oo」, 新濁(連濁)은 「8」으로 加點된다.

29) 『南北相違抄』의 異本간 加點에 대한 비교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上野本	東京本	京都大本
		

〈그림 4〉「天真獨郎」의 加點例

한편 위와 같이 「獨」의 淸濁이 竝存하는 양상은 『補忘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獨。步 步'字半濁 [上6ウ5]

獨尊 尊'字高野^二濁^レ也 [上6ウ6]

위 용례를 보면 《獨步》라는 어휘에서는 入聲單点으로 加點하고 있고, 《獨尊》에서는 入濁(本濁)으로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獨」에 濁音 이외에 淸音의 字音이 존재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補忘記』에서는 서로 다른 어휘에서 淸濁이 다르게 加點되어 있는 반면 본 자료에서는 寺云 내에서 같은 어휘의 淸濁이 다르게 加點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東京本에 보이는 本濁点은 본래의 定母를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같은 寺云 내에서 동일 어휘를 淸音과 濁音의 두 字音으로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고 筆寫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東京本の 本濁点은 誤記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용례는 『法華經』讀誦音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 보이는 「獨」의 入聲單点은 『補忘記』의 용례와 같이 淸音을 의도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全濁 定母에 속하는 「獨」은 吳音에서는 濁音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자료 및 『補忘記』와 같이 특정 어휘 혹은 宗派에 따라 淸音으로 읽는 경우가 인정되며, 특정 宗派에 있어서의 특정 어휘에 보이는 字音으로 생각된다.

2. 冬韻1等

〈표 3〉冬韻1等 字音点分韻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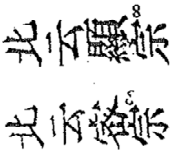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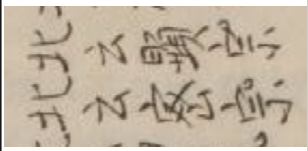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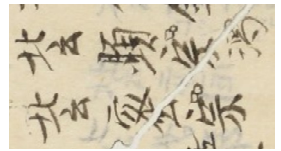
漢字	聲母	聲調	反切	項目	南北相違集					山家本	日相本
					南云	北云	寺云	山云	所在		
宗	精	平	作冬	顯宗	()	(去濁)			6才2	シユ _左 /シユウ _右 (上)	信-122
				密宗	(去)	(去濁)			6才3	シユウ(上)	提-83 シウ(平) 信-122

1) 宗[精平/作冬切]

「宗」은 《顯宗·密宗》이라는 어휘에 사용되고 있으며 南云의 《顯宗》을 제외하고 字音注 없이 모두 聲點만 加點되어 있다. 이 글자는 南云과 北云에서 모두 보이는데 南云에서는 去聲單点으로 淸音이지만 北云에서는 두 어휘 모두 去濁(本濁)으로 加點되어 있어 濁音を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宗」은 全淸의 精母字이므로 吳音·漢音에서 모두 淸音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인 字音이다. 그런데 두 어휘 중 《顯宗》는 「宗」의 前接字가 鼻音韻尾를 가진 글자이기 때문에 新濁(連濁)에 의해 濁音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密宗》의 경우는 新濁의 조건이 아니므로 本濁의 加點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山家本과 日相本에서는 대체로 鼻音韻尾에 후속하는 글자는 新濁이 되지만 「宗」이 新濁으로 加點된 용례는 보이지 않고, 『法華經』經文 전체에서 淸音으로만 읽고 있다.

한편 이 어휘의 加點 상황을 異本에서 확인해 보면 東寺本과 善通寺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東京本과 京都大本에서 찾을 수 있다.

上野本	東京本	京都大本
		

〈그림 5〉「顯宗·密宗」의 加點例

<그림 5>를 보면 上野本과 京都大本은 두 어휘 모두 本濁点이 加點되어 있으며 京都大本은 注釋 하단에 「濁」이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濁音이 명확하다.³⁰⁾ 반면 東京本에서는 두 어휘 모두 去聲單点으로 加點하고 있어 南云과 동일하게 淸音으로 보인다는 점이 上野本·京都大本과는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술한 《天真獨郎》의 「獨」에서도 東京本만 다르게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顯宗》에서 「宗」의 淸濁은 『補忘記』에 의하면 다른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³¹⁾

30) 京都大本에서는 「南云顯宗淸」으로 聲點 없이 「淸」이라 설명하고 있다.

31) 《顯宗》이라는 항목은 『補忘記』貞享4年本(1687)에는 없기 때문에 元祿8年本(1695)에 의했다.

顯宗 顯教也 釋論 總問總答(フ入) 顯宗 門時 宗字去聲ノ而清 [地8ウ4]

『補忘記』의 내용을 보면 《顯宗》에 新濁点이 加點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北云에 加點된 本濁点是 新濁에 의한 濁音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동일한 어휘인 《顯宗》이라도 釋論의 《總問總答顯宗門》에서는 清音으로 읽는다는 것이다. 이는 東京本の 加點者가 「宗」의 清濁을 《顯宗》단독으로 읽을 때와 「總問總答顯宗門」의 讀音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大石麻衣에 의하면 『廣說佛教語大辭典』에 기재된 《顯宗·密宗》 두 어휘의 字音を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²⁾

『廣說』 顯宗けんしゅう【南都】けんしゅう【北嶺】けんじゅう
密宗みっしゅう【南都】みっしゅう【北嶺】みつじゅう

『廣說佛教語大辭典』의 字音を 참고하면 두 어휘 모두 清音으로 읽으며 南云도 동일하다. 또한 北云에서는 濁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자료의 加點과 일치한다. 다만 『廣說佛教語大辭典』에서는 『補忘記』와 같이 어휘에 따른 세부적인 字音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補忘記』는 眞言宗의 字音を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顯宗》의 清濁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에 加點된 두 어휘의 清濁 문제는 「新濁의 반영」에 있으며, 《密宗》의 경우도 「新濁의 고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密宗》에도 本濁点이 加點된 것은 《顯宗》의 영향 등에 의한 北云 자체의 讀誦습관(讀癖)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南云에서는 《顯宗》에서는 聲點이 없기 때문에 清音으로 읽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본 자료가 南云과 北云에 있어서 字音의 相違点を 기록했다는 점에서 清音으로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新濁을 반영하지 않는 流派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加點 형태라 할 수 있으며,

注釋 내용에서 「答(フ入)」은 聲點 위치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フ入으로 나타냈으며, 이 聲點의 위치는 唇內入聲을 漢字 하단 중앙에 加點한 것이다. (原文 答)

32) 大石麻衣 外(2016:53) 『『南北相違集(南北音義抄)』『補忘記』元祿版字音關係項目对照資料』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會『論集』XI,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會(早稲田大學)에서 재인용하였으며, 이 논문에서 사용한 『廣說佛教語大辭典』은 中村元(2001)『廣說佛教語大辭典』東京書籍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山家本이나 日相本 등에서도 일부 보이는 점이므로 특정 어휘에 보이는 流派간의 相違라 할 수 있다.

더불어 東京本の 加點은 상술한 「獨」을 고려하면 誤記일 가능성이 있지만, 『補忘記』와 『廣說佛教語大辭典』의 내용을 참고하면 加點者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東韻3等乙

〈표 4〉 東韻3等乙 字音点分韻表

漢字	聲母	聲調	反切	項目	南北相違集					山家本		日相本
					南云	北云	寺云	山云	所在			
覆	滂	入	芳福	覆障		フ()	フク()		6才6	フク(入)	信-132	フ(去) 信-132
				有覆無覆	フ()	フク()			15ウ2	フ(平) フク _左 /フ _右 (平) フ(平) (平)	譬-232 譬-291 神-33 本-14	フ(去) 譬-232

1) 覆[滂入/芳福切 · 滂去/敷救切]

「覆」은 《覆障》과 《有覆無覆》라는 어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前者는 北云과 寺云, 後者는 南云과 北云의 字音を 나타내고 있다. 이 글자의 특징은 多音字의 반영에 있다. 「覆」은 『廣韻』에 의하면 「反覆又敗也倒也審也又敷救切」과 같이 「芳福切」(入)과 「敷救切」(去) 「蓋也又敷六切」 외에도 「扶富切」 「匹北切」 등의音が 있는 글자이다. 본 자료에서도 각 流派에서 「フ」와 「フク」로 어휘에 따라 字音を 구별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異本에서도 동일하다. 이 점은 山家本과 日相本の 加點에서도 보이는데 참고로 <표 4>에서는 尤韻에 해당하는 字音도 모두 나타냈다.

우선 山家本은 入聲과 去聲의 두音を 經文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日相本에서는 經文 모두 去聲의 「フ」만 사용하고 있다. 北云에서도 두 어휘의 字音を 去聲과 入聲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山家本과 동일하다. 또한 《覆障》은 北云과 寺云에서, 《有覆無覆》은 南云과 北云에서의 구별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覆」이 사용된 어휘는 다르지만 『補忘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³⁾

《覆講法華》 山門ノ名目也當山順^ス之^ニ或云三井及唯識宗^{ニハ}覆^ト可^レ尋^レ之
[地12才6~地12ウ1]

《覆講法華》라는 어휘에서 「覆」에 平聲單点이 加點되어 있기 때문에 山門에서는 「フ」로 읽었을 것으로 보이며, 三井와 唯識宗에서는 「フク」로 대비되고 있다. 여기서 三井는 天台寺門宗의 總本山인 三井寺를 말하며 唯識宗은 法相宗을 가리킨다. 《覆講法華》도 寺門에서는 「フク」로 읽는다는 것은 본 자료의 寺門에서 《覆障》을 「フク」로 읽는 점과 일치한다.

「覆」과 같은 多音字에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읽는 습관은 일률적이지 않고 개별 어휘에 따라 傳承 과정이 다른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字音의 相違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각 宗派에서 어떻게 傳承되어 왔는지 혹은 그들의 字音觀이 어떤지 알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法華經』讀誦音의 연원을 기록한 注釋書(音義)의 내용을 통해 宗派간의 字音觀을 엿볼 수 있다.³⁴⁾ <표 5>는 『法華經』卷2 信解品 132 行에 있는 《覆自念言》의 讀誦音에 대한 내용이다.

<표 5> 『法華經』注釋書 3種의 비교

法華經山家本裏書	法華經音義補闕	法華經隨音句
[信]諸本ノ音フク。科註ニ云作 ^ニ 富 ^ノ 音 ^一 者 ^ハ 非 ^ト 。建寧本ニ云方六 ^ノ 切反覆也…然 ^ニ 無 ^下 古本讀 ^ニ 去聲 ^一 者 ^ハ 淵案 ^ニ 入聲 ^一 モ亦有 ^ニ 蓋 ^ノ 義 ^一 韻會小補ニ云古讀 ^ニ 匹北 ^ノ 切 ^一 蓋也。 [p.76]	[信]覆 ^ハ 科註箋難 ^{ニハ} フク ^ノ 音トス。句解 ^{ニハ} 去聲フ ^ノ 音トス。フ ^ハ 隱覆 ^ノ 義ナルヲ以 ^テ ヒソカトヨマセタリ。去聲 ^ノ 義親 ^シ 。如 ^ニ 隨音句 ^一 。 [三31才1]	[信]科註 ^ニ 箋難 ^一 云 ^ニ 芳六切 ^一 文。此 ^ノ フク ^ノ 音也。句解 ^{ニハ} 釋 ^ノ 云 ^ニ 密自作念 ^一 。此 ^ハ フ ^ノ 音ナルヘシ。覆蓋 ^ハ 隱密 ^ノ 義也。此二義 ^ノ 中 ^{ニハ} 句解 ^ノ 義 ^ハ 應 ^{スル} 文歟。此 ^レ 既 ^ニ 頌 ^{スル} 上 ^ノ 窺 ^ト 作念 ^一 故也。覆 ^ト 窺 ^ト 義同 ^シ 。故 ^ニ フ ^ノ 音 ^一 可從。余 ^ハ 一部內 ^ニ 覆 ^ヲ フクト讀處無 ^レ 之。 [上30ウ10]

33) 『補忘記』元祿8年本(1695)에 의함.

34) 宗淵『法華經山家本裏書』(1840), 日相『法華經音義補闕』(1698), 日遠『法華經隨音句』(1634)에 의하며, 宗淵은 天台宗, 日相과 日遠은 日蓮宗의 學僧이다. 위 注釋書들은 近世시기 反切音과 현실의 讀誦音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탄하며 올바른 讀誦音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法華經山家本裏書』에서는 전통적인 讀誦音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法華經音義補闕』과 『法華經隨音句』에서는 韻書에 의해 字音을 改變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위 내용에 의하면 經文《覆自念言》에서 「覆」의 讀誦音은 天台宗에서는 「フク」, 日蓮宗에서는 「フ」가 바른 音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세 자료에서 모두 科注의 反切과 의미를 인용하고 있지만 한 쪽만을 강조하여 선택하고 있고, 의미에 관해서도 해석에 차이가 있다. 즉 동일한 어휘에 있어서 「フ」와 「フク」로 구별해서 읽는 것은 韻書 등을 통해 의미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恣意的인 경향이 강하며, 결국 宗派나 流派의 전통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동일한 글자에 서로 다른 字音이 전승되는 과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鍾韻3乙

用例 없음.

5. 東韻・鍾韻3等甲

〈丑 6〉 東韻3等甲 字音点分韻表

漢字	聲母	聲調	反切	項目	南北相違集					山家本		日相本	
					南云	北云	寺云	山云	所在				
終	照	平	職戎	終南山	シウ ()	シュ ()			13ウ2	シユウ(去濁) (去濁)	方-165 譬-197	ジウ(平濁)	方-165
				大乘終經		シュ ()		シウ ()	14ウ5				
衆	照	去	之仲	衆生	(去濁)	(去)			9ウ6	シユウ(平)	序-3	シュ(平)	序-3
										(上)	序-16		序-16
										(平)	序-43		序-16
										(平新濁)	序-105		序-105
										(毘)	序-115		序-115
										(去)	序-208		序-115
										シュ(上)	序-237		序-115
										シュ(毘)	譬-296		序-115
融	喻	平	以戎	融通			ユ()	ユウ ()	8ウ3	シユウ(毘)	譬-365	シュ()	序-115
										シユウ(平新濁)	授-13		序-115
													序-115
												シユ(下中聲)[ママ]	分-65

〈丑 7〉 鍾韻3等甲 字音点分韻表

漢字	聲母	聲調	反切	項目	南北相違集					山家本		日相本	
					南云	北云	寺云	山云	所在				
重	澄	上	直隴	重受戒	(平濁)	(平)			12才5	チウ(平濁) (平濁) チヨウ _左 /チウ _右 (平濁)	序-44 序-194 發-97	チウ(上濁) チウ(去濁) (去濁)	序-44 方-19 授-79
足	精	入	即玉	不足數	(入)	(入)			12ウ2	ソク(入) (入) ソク(入新濁) (入新濁)	序-43 序-144 方-59 方-171	ソク(入) ゾク(入新濁) (入)	序-43 方-59 授-73
從	從	平	疾容	從假入空			ジウ ()	ジュ ()	15才1	シユウ(去濁) (去濁) (上濁) シユウ(上濁)	序-79 方-7 方-247 譬-3	ジユウ(去濁) ジユウ(去 _[マ])	序-79 五-6
頌	邪	去	似用	頌ノ字	ジウ (去濁)	ジュ ()			5ウ4	シユ(平濁) (平濁) シユウ(平濁)	方-205 化-43 法-72	ジユ(去濁)	方-205
種	照	上	之隴	種子	シウ ()	シュ ()			5ウ5	シユウ(平) (平) (平新濁) シユウ(平新濁)	序-48 序-58 序-58 妙-74	シユ(上) ジュ(上新濁) シユ() シユ(去) ヅ(上新濁) シユ _[マ] (上新濁)	序-48 序-58 譬-350 五-127 寶-67 發-5
用	于	去	余頌	休用	イヨウ ()				7才1	ヨウ(平) (平) ニヨウ _左 (平)	方-237 信-153 功-49	ユウ(去)	方-237

본 절에서는 東韻・鍾韻甲類의 字音形에 있어서 -iu(>juu)形(割音形)과 -ju形(融合形)이 混在하는 양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韻을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이 중 「足」은 가나(假名)音注 없이 入聲單点만 加點되어 있으며, 東京本은 聲點도 없다. 「足」은 遇攝의 「子句切」이라는 字音도 있으나 南云과 北云 모두 入聲으로 加點하고 있어 차이는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終[照平/職戎切 · 融[喻平/以戎切 · 從[從平/疾容切 · 頌[邪去/似用切 · 種[照上/之隴切 · 用[于去/余頌切]

우선 이 글자들은 각 宗派에 있어서 같은 글자의 清濁 차이는 없으며 -iu形(割音표기)과 -ju形(融合표기)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iu形과 -ju形의 淵源에 대해서는 ㅅ행의 音價 및 長音의 성립(位置づけ), 鼻音韻尾 -ŋ의 표기 문제 등이 결부된 복잡한 사정이 있다. 中世 말기가 되면 ㅅ행의 音價는 현대와 가까워지고 長音은 音韻으로서 확립되며, -ŋ韻尾는 그 實態를 잃게 되는 등 현대 일본어에 가까워지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中世 이전에 있어서는 -iu形과 -ju形 사이에 오늘과 같은 명확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補忘記』의 注釋에 의하면 이 둘의 차이에 있어서 현대 일본어와 같이 長短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宗派에 의한 차이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宗派에 따라 이러한 長短에 대한 字音 인식(字音觀)은 고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오랜 시기에 있어서는 「シウ(シウウ)」와 「シュ」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명확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混在는 遇攝과 流攝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이지만, 본 절에서는 通攝의 現狀에 한해 기술한다.

본 자료에 보이는 -iu形과 -ju形의 분포는 南云은 -iu形이 우세하고, 北云은 -ju形이 주된 字音形다. 山云과 寺云에서는 용례는 적지만 어휘에 따라 두 字音이 混在한다. 이는 宗派 간의 傳承이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字音의 결정에 있어서는 일률적이지 않다.³⁵⁾

이러한 混在를 이해하기 위해 본 자료 이외에 『法華經音義』諸本の 字音 및 韻鏡類 등에 보이는 「シウ(シウウ)」와 「シュ」의 加點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5)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直讀 자료인 『山家本法華經』과 『日相本法華經』을 참고하면 鼻音韻尾를 반영한 -juu形이 우세하다.

〈표 8〉『法華經音義』의 字音 용례³⁶⁾

韻	漢字	九條	西音	西略	心訓	心音	快韻	快音	承應	淨土
東韻甲	終	シユウ (去濁) [受風反]	シュ(去濁)	シユ(去濁)	シユウ (去濁)	シユウ (去濁)	シウ(去濁) <次商清> [之中切]	シユウ (去濁)	シユウ (去濁)	シユウ _左 / シユ _右 [職戎]
	融	-	-	-	-	-	-	-	-	イウ _左 / _右 [以戎]
鍾韻甲	重	チウ(平濁) [持龍反]	チウ(平濁)	チウ (平濁)	チウ (平濁/ 去濁)	チウ (平濁/ 去濁)	チュウ (平濁/去濁)① <次徵濁> [儲用切]	チウ(平濁)	チウ (平濁/ 去濁)	チヨウ _左 / チュ _右 (去濁) [直·容]
	從	シユウ (去濁) [受空反]	シュ(去濁)	シユウ (去)	シユウ (上濁/ 去濁)	シユウ (上濁/ 去濁)	シユウ (去濁)②/ ③ [縱·同切]	シユウ (去濁)	シユウ (上濁/ 去濁)	シヨウ _左 / シュ _右 (去濁) [疾·容]
	頌	-	シュ(平濁)	シユウ (平濁)	シユウ (平濁)	シユウ (平濁)	シユウ (平濁)④ <商次濁> [似用切]	シュ(平濁)	シユウ (平濁)	-
鍾韻甲	種	シユウ(平) [者調反]	シュ(平)	(平)	-	シユウ(平)	シユウ(平/ ⑤/⑥) [腫·同切]	シュ (上/去)	シュ(平)	シヨウ _左 / シュ _右 [之用]
	用	-	ヨウ(平)	ヨウ(平)	ヨウ(平)	ヨウ(平)	ヨウ(平) <宮清濁> [余頌切]	ヨウ()	ヨ·ヨウ (平)	ヨウ _左 / _右 [余頌]

『法華經音義』諸本の 字音은 위 표와 같이 -juu形이 우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西音은 -ju形이 대부분이고, 快音은 본 자료와 같이 두 字音이 혼재한다. 西音은 西略과 同系인 西教寺本에 해당하지만 鍾韻의 字音이 서로 相異하다. 『法華經音義』는 法華經文 중 발음이나 의미에 주의해야 하는 글자들을 실어 놓은 일종의 사전이다. 따라서 西音과 西略의 字音이 어떤 經文에서 사용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36) 표 안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九條	西音	西略	心訓	心音	快韻	快音	承應	淨土
九條家本 (平安末期)	法華經音義 (西教寺本, 1365)	法華經略音 (西教寺本, 1365)	法華經音訓 (心空本, 室町初期)	法華經音義 (心空本, 1649)	法華經文 字聲韻 (快倫本, 1636)	法華經音義 (快倫本, 1653)	法華經音義 (作者未詳, 承應3年, 1654)	淨土三經字 音考 (玄智本, 1773)

經文에 의한 讀誦音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誤寫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西音의 字音が 다른 『法華經音義』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同系の 音義라 하더라도 學習 傳承의 차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위 音義들은 주로 天台宗 계통의 것이지만 맨 우측의 「淨土」는 淨土宗의 『淨土三部經音義』이다. 이 자료는 韻書에 의해 거의 일률적으로 字音を 改變한 것이기 때문에 聲點도 廣韻과 대부분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淨土」는 『法華經音義』보다는 吳音 자료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지만, 다른 자료와의 異同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淨土」의 字音은 右音注가 吳音이며 -ju形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長音인 漢音形과 명확한 대비를 보인다. 이 역시 天台宗이나 日蓮宗 등과 다른 傳承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學習 傳承이 구체적으로 어떤 字音觀에 의한 것인지는 注釋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9〉『法華經』注釋書의 해석

漢字	注釋
重	[序]重 ^{チウ} 舌音也。舌 ^上 アギトニツケテ唱 ^フ ヘシ。皆人ソンジウト呼 ^フ 誤也。 ジウ ^ハ 齒音ナリ不 ^レ 可 ^レ 濫 ^ス 。尊重 ^ハ 時 ^ハ 重 ^ハ 上聲濁音也。此 ^ノ 時 ^ハ フモンズルトヨム也。… 『法華經音義補闕』(1698)二6ウ8
誦 ³⁷⁾	[序]誦 ^ハ 去聲宋用 ^ニ 入 ^テ 。漢音 ^ハ シヨウ。吳音 ^ハ シユウ ^ノ 音也。頌訟種誦等 ^ハ 同 ^ク シユウ ^ノ 音也。 書寫流 ^ニ 。頌誦等 ^ノ 字 ^ハ 皆シユウ ^ノ 仮名付ラレタリ。然 ^レ ト天下通同 ^{シテ} 。僞誦讀誦種種 ^ハ ヨミ來 ^{レリ} 。 其 ^ノ 上嵯峨本等 ^モ 順 ^ノ レ世 ^ニ シユ ^ノ 仮名 ^ヲ 付玉ヘハ。自 ^レ 古 ^ハ ヨミ來 ^ル カ如 ^ク ジウトヨムベシ。 『法華經音義補闕』(1698)二20オ9
用	[方]常 ^ニ ハ。體用 ^ノ 時 ^ハ 。ユウ。以 ^ノ 訓 ^ノ 。モチユル時 ^ハ 。ヨウ ^ノ 音 ^ト 。思 ^{ヘリ} 。… 韻會日去聲宋。用 ^ハ 餘頌(シヨウ ^左 /シユウ ^右) ^ノ 切 ^云 。吳 ^ハ 。イユウ。漢 ^ハ イヨウ也。 一部 ^ノ 內。用 ^ノ 字甚多。皆イユウト可讀之。 或書寫流 ^ハ 書 ^ニ 。鐘。種。腫。誦。頌。訟等 ^ハ 皆シユウト付 ^{タリ} 。亦南都讀方 ^モ 。皆余也。 『法華經隨音句』(1634)上14オ5
容	[本]容 ^ハ 餘封切。吳 ^ハ ユウ。漢 ^ハ ヨウ也。故今ユウト可讀之。具 ^ニ 如信解 ^ノ 備賃 ^ノ 下注 ^レ 之。… 『法華經隨音句』下14オ3
容	[寶]元祿本改 ^テ 讀 ^レ ユウ。然 ^ニ 相承 ^ノ 音 ^{ヨウ} 。 『法華經山家本裏書』(1840)[寶]p.102

『法華經隨音句』와 『法華經音義補闕』은 日蓮宗의 것이며, 『法華經山家本裏書』은 天台宗의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近世 시기 讀誦音과 反切音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讀誦音이 무엇인지 찾고자 韻書를 비롯한 많은 典籍 등을 통해 讀誦音을 규정한 책이기 때문에 吳音의 傳承과 정착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우선 「重」의 내용은 淸濁에 관한 것이지만 《尊重》이라는 어휘의 讀誦音이 「ソンジウ」라 함은 잘못된 것이며 舌音이기 때문에 「ヂウ」가 맞는 字音이라 하고 있다. 결국 舌齒音 淸濁의 문제를 빼면 -iu形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頌種」과 같은 韻의 「誦」의 경우 去聲宋用에 속하기 때문에 漢音은 「シヨウ」, 吳音은 「シユウ」이고, 「頌訟種誦」등도 書寫類에서 「シユウ」로 하고 있으므로 吳音은 「シユウ」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世間에서는 「偈誦讀誦」^{ゲシヨクシヨ}와 같이 「シユ」라는 가나(仮名)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シユ」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올바른 讀誦音을 위해 韻書 등에 의한 反切音이 중요하기는 하나 古來로 전해오는 傳承音 즉 慣用도 중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用」의 字音은 《體用》이란 어휘에서는 「ユウ」, 《モチユル》의 의미일 때는 「コウ」로 읽지만, 韻會 즉 『古今韻會舉要』의 反切에 의해 吳音은 「イコウ」, 漢音은 「イコウ」라 논하고 있다. 또한 書寫類에서도 「鐘種腫誦頌訟」을 「シユウ」로 읽고 있으며, 南都에서도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長音인 「イコウ」를 吳音으로 인정한 것이다.³⁸⁾ 이외에 「用」과 같은 韻의 「容」을 보면 日蓮宗은 韻書의 反切을 인용하여 吳音은 「ユウ」로 보고 있는 반면 天台宗의 『法華經山家本裏書』에서는 元祿本에서는 「ユウ」로 改變했으나 傳承音은 「コウ」로 보고 있다.³⁹⁾ 이 점은 이 글자들의 「ユウ」는 改變한 字音이기 때문에 漢音形이라도 「コウ」가 올바른 音으로 인식한 것이다.

37) 「誦」은 본 자료의 「頌種」의 字音에 대한 설명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頌種」대신 제시하였다. 표 안의 [序]方은 『法華經』 28品 중 序品과 方便品の 약칭이다.

38) 毛利貞齋의 『韻鏡名乘字大全』(貞享2,1685)에는 「用」의 字音이 「イコウ」로 되어 있지만 같은 韻의 平聲인 「庸」은 「コウ」로 相異하다. 韻鏡類의 字音點은 주로 吳音은 「ユ」, 漢音은 「コウ」로 보이기 때문에 南云의 「イコウ」와 『法華經』 『法華經音義』諸本の 「コウ」는 漢音形일 가능성이 높다.

39) 眞福寺藏 『八名普密陀羅尼經』鎌倉中期點의 加點에 의하면 「用」은 「ユウ」이지만 같은 鍾韻에 속한 「踊勇」은 「ユ」로 차이가 있다. 佐々木勇(1990:52)에 의함.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法華經讀誦音의 경우 通攝의 3等韻은 韻尾를 반영한 長音形(-juu形)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iu形과 -juu形에 대한 차이는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⁴⁰⁾ 더불어 -juu形의 경우 관용적인 字音を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法華經音義』에서도 자료 간의 相違가 보이므로 韻學적 지식 이외에 宗派나 流派에서의 傳承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補忘記』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傳承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衆^〇同^〇分 唯識宗^{ニハ}衆^ノ字去聲^ノ字任意聲^云衆^〇同^〇分^ト [地27才4]

衆^〇緣^〇所生^〇 唯識宗^{ニハ}云^{シウ}衆^〇緣^〇所生^ト [地27才6]

宗^{シユ}密^〇 禪家^{ニ云}宗^{シユ}密^ト [地28ウ3]

習^〇種^〇姓^〇 唯識宗^{ニハ}云^{シユ}習^〇種^{シユ}姓^ト 三井^{ニハ}云^{シウ}習^{シユ}種^{シユ}姓^ト [地28才6~地28ウ1]

手^{シウ}鏡^{ケイ} [地30才4]

『補忘記』의 내용에 의하면 唯識宗에 있어서 東韻3等「衆」의 字音은 「シユウ」와 「シウ」로 읽으며, 鍾韻3等の 「種」도 「シユウ」로 동일하지만 天台宗系인 三井(寺)에서는 「シユ」로 읽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宗派간의 相違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冬韻1等の 「宗」도 眞言宗은 「シユ」로 읽지만 禪家(禪宗)에서는 長音인 「シユウ」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眞言宗에서는 流攝의 「手」도 「衆」과 같이 長音인 「シウ」로 읽고 있는데, 『法華經』諸本の 字音은 일반적으로 「シユ」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佛家の 諸宗派에 있어서 「シウ・シユ・シユウ」의 傳承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南北相違抄』의 加點 상황과 일치한다. 다만 동일한 어휘라 해도 같은 宗派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補忘記』에 보이는 「シウ」와 「シユウ」는 대부분 去聲点으로 加點하고 있다는 점이다. 日本漢字音史상 「去聲 1音節字의 上聲化」라는 변화는 이미 논의된 바 있다. 「去聲 1音節字의 上聲化」는 上聲과 去聲 글자 뒤에 오는 1音節

40) 〈표 8〉에서 「快韻」이라 표기된 快倫 『法華經文字聲韻音訓篇集』에서는 『韻鏡』第一轉의 글자를 -iu形으로, 第二轉의 글자를 -juu形으로 하고 있다.

의 去聲字가 2音節 去聲字와 같이 去聲調(低高型)로 발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속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上聲化되고 2音節의 글자는 去聲調(低高型)을 유지하게 된 것을 말한다. 沼本克明에 의하면 이 현상은 平安 후기의 자료 이후 점차 증가하며, 鎌倉時代 중기에 이르러 去聲一音節字가 소멸하여 전부 上聲化했다는 것을 언급했다.⁴¹⁾ 즉 이 시기에 長短音의 聲調는 去聲=2音節, 上聲=1音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補忘記』의 「シウ」와 「シユウ」에 去聲点이 加點된 것도 이러한 聲調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吳音 자료에 보이는 長音은 去聲이어야 하지만 자료에 따라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聲調의 영향만으로 長短音의 混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日蓮宗이나 淨土宗 등에서는 韻書에 의해 字音과 聲點을 대부분 改變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현상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2音節 去聲을 모든 宗派에서 유지했을지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南北相違抄』에 보이는 「シウ・シユ・シユウ」의 混在 양상이 다른 吳音系 佛典 자료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자료 이외에도 近世 시기 『韻鏡』연구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韻鏡類의 字音도 참고가 된다. 韻鏡類의 字音은 音義類처럼 韻學적 지식에 의한 것이지만 韻圖의 특성상 균일한 字音 즉 획일적인 字音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音義類와는 크게 다르다. 이하 管見의 범위에서 吳音과 漢音이 모두 加點되어 있는 자료만 제시한다.

〈표 10〉 韻鏡類의 字音注 シウ(シユウ)・シユ 비교⁴²⁾

	磨光韻鏡 (1744)	韻鏡藤氏傳 (1776)	韻鏡速成 (1795)	漢吳音圖 (1815)	隋唐音圖 (1850)	音韻假字格 (1863)
終	シユ/シユウ	シユ/シユ于	シユ/シユウ	シヨウ/シユウ	シユ/シユウ	しゅう/しよを
充	シユ/シユウ	シユ/シユ于	シユ/シユウ	シヨウ/シユウ	シユ/シユウ	しゅう/しよを
衆	シユ/シユウ	シユ/シユ于	シユ/シユウ	シヨウ/シユウ	シユ/シユウ	しゅう/しよを
銃	シユ/シユウ	シユ/シユ于	-	シヨウ/シユウ	シユ/シユウ	-
鍾	シユ/シヨウ	シユ/シヨ于	シユ/シヨウ	シユウ/スヲウ	シユ/シヨウ	さゅう/しよう

41) 沼本克明, 『日本漢字音の歴史』, 東京堂出版, 1986, 258~260면.

42) 左音은 吳音, 右音은 漢音を 나타낸다.

種	シユ/シヨウ	シユ/シヨ于	シユ/シヨウ	シユウ/スヲウ	シユウ/シヨウ	-
縱	シユ/シヨウ	シユ/シヨ于	シユ/シヨウ	シユウ/スヲウ	シユ/シヨウ	-
從	ジユ/シヨウ	ジユ/シヨ于	ジユ/シヨウ	ジユウ/スヲウ	ジユウ/シヨウ	-

6種の 韻鏡類 자료에 보이는 「シウ・シユ・シユウ」의 인식은 『漢吳音圖』와 『音韻假字格』을 제외하면 吳音은 短音인 「シユ」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漢音의 長音과의 대비를 의식한 韻圖상 橫圖의 처리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東韻3等과 鍾韻3等の 漢音形은 두 韻의 主母音의 차이를 반영한 점에서 韻圖의 인위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漢吳音圖』와 『音韻假字格』의 字音 규정은 다른 자료와의 차이를 보이지만 主母音의 반영을 달리하는 특징으로 吳音과 漢音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6種の 자료에서 보이는 吳音은 「シユ」로 한 자료가 많지만 「シユウ」를 吳音으로 하고 있는 자료도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佛典 자료의 混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 자료에서 대다수 吳音을 「シユ」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近世 자음가나즈카이(字音仮名遣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磨光韻鏡』을 저술한 文雄의 다른 저서 『三音正譌』(1752)와 本居宣長の 『字音假字用格』(1776)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⁴³⁾

『三音正譌』는 『韻鏡』의 第1轉부터 第43轉에 실려있는 글자들의 吳音・漢音・華音(唐音)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シウ・シユ・シユウ」의 내용은 第1轉과 第2轉에 보인다. 이하 吳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一轉

^{シユシユ}
終充 終ヲ濁音ト スルハ非ナリ。台家ニ終教ヲシユギヤウト讀ムハ是ナリ。華
嚴家ニジユウキヤウト ヨムハ謬レリ充 亦清音ナリ。充滿ヲ濁ニ呼フハ非ナリ。
[下3ウ10]

43) 『磨光韻鏡』을 저술한 文雄은 近世 시기 『韻鏡』연구와 「字音仮名遣い」연구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三音正譌』(1752)도 『韻鏡』연구의 대표작이다. 本居宣長の 『字音假字用格』(1776)은 字音 즉 吳音과 漢音을 어떤 가나(仮名)로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만요가나(万葉仮名) 및 『韻鏡』과 같은 韻學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저술이다.

^{ジュ}崇 濁音ナリ。清音ニ呼フハ宗ノ音ナリト思ヘルヨリノ謬ナラン。[下4オ2]

○第二轉

^{チユヂユニニチユヂユニ}備重^{チユ}醴^{ヂユニ}家^ニ寵^ニ重^ニ醴^ニ(=渾)⁴⁴⁾重^ニ戒^ニ 重ヲヂウトスルハ訛ナリ。其餘漢音ヲ用ユルハ謬
レリ。入聲ノ音ハ前ノ如シ。[下5オ7]

^{シユシユシユソク}縱從^ニ松栗^ニ 縱ヲ濁音トスルハ非ナリ。又^ニヂユウト^ニ스^ニル^ニモ^ニ非^ニナ^ニリ。從ヲ長聲トス
ルハ訛ナリ。松ハ頌ノ平聲ナルヲ知ラス。但漢音ニテシユウトスルモ謬
リ。栗散王ノ清ナルハ正シ。[下5オ10]

^{シユシユ}鐘^ニ樓^ニ 二字同音ナリ。シ^ニユ^ニウ^ニハ漢音腫種ノ平聲ナルニテ其非ヲ知ルヘシ。鐘樓^{シユ}
木^モシ^ニユ^ニト^ニ스^ニ吳音ノ正シキナリ。[下5ウ2]

第1轉의 내용은 淸濁에 대한 것이지만 「終」의 字音が 天台宗은 「슈」, 華嚴宗은 「슈ウ」로 다르며, 「終充崇」의 吳音은 모두 短音인 -ju形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華嚴宗의 「슈ウキヤウ」라는 字音에서 「終」을 濁音으로 읽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앞에서 「終充」을 「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하면 文雄은 華嚴宗의 「終슈ウ」도 잘못된 字音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第2轉에 속한 글자들 역시 「重」의 「ヂウ」,⁴⁵⁾ 「從」을 長聲 즉 「슈우」로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鐘」의 「슈」가 맞는 吳音이라 했다. <表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자들의 漢音은 「슈우・シユウ」로 長音인데 특히 東韻3等の 경우 吳音도 長音인 「슈우」로 처리하게 되면 漢音과 동일한 字音이 된다는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本居宣長の 『字音假字用格』에서도 文雄과 유사한 字音 規범을 엿볼 수 있는데, 韻鏡類에 보이는 漢音과의 대비보다는 韻에 따라 長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4) 『三音正謬』原文에는 「渾」의 異體字인 「醴」로 되어 있는데, 워드 프로그램에는 등록되어있지 않은 글자이기 때문에 臺灣의 教育部異體字字典에서 인용하였다.(검색일 2021.10.15.)

https://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word_attribute.rbt?quote_code=QjAyMTkw

45) 상술한 바와 같이 「重」의 경우 佛典 讀誦音은 「ヂウ」를 올바른 吳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しう〕 〔𪛗〕 周秋愁啾秀州洲酬囚匄邇收鄒搜蒐臭袖岫醜讎舟羞繡獸脩修首受授黷就酒手
狩聚驟 以上漢ニ吳ハ しゆ又す 柔蹂 漢ナリ吳ハにゆ

〔しゆう〕 〔𪛗〕 衆終充嵩蟲 以上漢ニ吳ハしゆ 戎 漢ナリ吳ハにゆ 鍾 從縱 漢ハし
ようニ吳音じゆナレ^レ常ニじゆウト引テ呼故ニ出ス 〔園〕 主趨戌 ○右しう
トしゆウトヲ別ニ舉ル故ハしんとしゆん。しくとしゆく。しつとしゆ
つ。是ラ皆別ナル例ナレバニ。 ○虞ノ韻ノ者ハしゆニテしゆウト引ベキ
音ニハ非^レレ^レ常ニ引テ呼^フ例多シ。和名抄ニ乳酪和名^{ニウノカユ}瀬^ノ能可遊トアレバ乳
ハ虞ノ韻ナリ引^クモヒガクトニアラズ又此例ニ依ラバゆヲ省テしうト書
ンモアシカラジ凡テ虞ノ韻倣^レ之^ニ。[44ウ2~45オ1]

〔じゆ〕 樹壽受授就頌驚聚娶豎○需儒孺濡○^附入。[51ウ7]

本居宣長는 漢音의 경우 「시우」와 「슈우」를 韻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流攝의 尤韻에 속한 글자는 「시우」로, 東韻 3等に 속한 글자와 遇攝 虞韻의 3字를 「슈우」로 구별하고 있으며, 鍾韻 3等は 「쇼우」로 東韻 3等과 구별하고 있다.⁴⁶⁾ 반면 尤韻과 東韻 3等, 鍾韻 3等の 吳音은 「슈·슈」로 短音이다. 이는 尤韻에서도 漢音은 「시우」, 吳音은 「슈」로 구별하고 있고, 「從縱」의 吳音은 「슈」이지만 항상 「슈우」로 읽는다는 점을 언급한 점을 통해서 漢音의 長音形과의 대비를 인위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우」와 「슈우」를 구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우」의 日本語史에 있어서 拗長音化와는 별개로 「シン」과 「シュン」, 「シク」와 「シユク」, 「シツ」와 「シユツ」 등과 같은 直音과 拗音의 구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本居宣長가 「시우」와 「슈우」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文雄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吳音「슈」와 漢音「슈우」의 구별은 長短에 의한 漢吳音의 대비를 인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字音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韻書에 의해 字音을 改變한 『淨土三經音義』에서도

46) 참고로 太宰春台 『倭讀要領』(1728)에는 鍾韻 3等 「邕」의 字音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廣韻ニ於容ノ切。音雍。字冬ノ韻ニ入ル。漢音ヨウ。吳音イウ。後漢ノ蔡伯喈ガ名。俗儒イウト読ムハ。吳音ナリ。字邑ニ從ヘル故ニ。音邑ナリトオモヘルハ誤ナリ。邑ハ入聲。倭音イフナリ。[上19ウ8]

『倭讀要領』은 太宰春台가 漢文訓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책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할 글자들의 올바른 倭音에 대해서도 韻書를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 글자의 吳音은 「이우」로 다른 자료와 차이가 보인다.

동일한 대비를 보인다는 점은 인위적인 규정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佛典 讀誦音에서는 通攝의 字音의 경우 鼻音韻尾가 있는 「シウ」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글자에 따라 「シウ」와 「シユ」도 混在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韻鏡類에서는 이러한 混在을 상쇄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長音은 漢音으로, 短音은 吳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佛典 讀誦音이나 韻鏡類 모두 동일한 韻學에 기반한 것이지만, 韻鏡類 쪽은 현실에서의 字音 사정보다는 韻圖의 규칙에 의해 어떻게든 漢音과 吳音을 구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소 논의가 길어진 면은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日本漢字音史상 「シウ・シユ・シウ」의 淵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내포하고 있다. 通攝 3等韻에 보이는 이들의 混在는 佛典 讀誦音의 경우 鼻音韻尾를 고려한 字音을 유지하는 쪽으로, 韻鏡類와 같은 자료에서는 漢音과의 대비를 고려하여 吳音을 短音으로 일원화 시키고 있다. 즉 『南北相違抄』에 보이는 「シウ・シユ・シウ」의 混在는 中古音의 수용 시기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 佛典 讀誦音의 宗派간 學習 傳承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韻鏡類와 같은 연역적 규정에서는 短音만을 吳音으로 취급하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佛典 讀誦音과의 共時的인 位相差가 인정된다. 이처럼 宗派간 讀誦音의 차이와 함께 現實音과 反切音 사이에 보이는 차이 역시 吳音의 重層性을 더욱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나오며

본고는 『南北相違抄』에 加點된 字音의 實狀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의 일부로, 通攝 諸韻에 속하는 글자를 대상으로 佛典 자료 및 韻鏡類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南北相違抄』라는 자료의 성격대로 佛家の 諸宗派간에 있어서 字音의 차이를 보였다. 검토 대상의 글자 수가 많지 않지만 다른 吳音 자료와는 달리 宗派간의 相違点を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吳音의 傳承과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각 글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론으로 대신하며, 각 韻의 특징만 보면 東韻・冬韻1等에서는 -u形과 -uu形の 混在와 中古音과 清濁이 일치하지 않는 字音이 있었

다. 長短音의 混在는 東韻·鍾韻3等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으로 中古音의 반영보다는 宗派간에 이어져 온 傳承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이 점은 中古音과 清濁이 일치하지 않는 字音도 동일하다.

東韻·鍾韻3等甲에서는 佛典 讀誦音은 長音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韻鏡類는 漢音을 의식하여 短音을 吳音으로 규정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반면 「誦衆」등에서는 「シウ(シユウ)」이외에 관용적인 字音을 인정하여 「シユ(ジユ)」도 讀誦音으로서 수용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吳音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1拍과 2拍의 字音이 共時的으로는 이미 宗派 혹은 流派에 따라 그리고 經文의 어휘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표기 형식이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산발적 혹은 편향적인 경향이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글자라도 동일 宗派에서조차 어휘에 따라 다르게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宗派간 字音을 글자마다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東韻3等乙에서는 陰聲韻과 入聲韻의 多音字가 宗派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용례는 山家本과 日相本の 讀誦音에서도 보이는 예이다.

字音의 位相論적 접근은 中古·中世의 吳音을 고찰하는데에 있어서 불가피하다. 吳音은 漢音에 비해 체계를 논하기 어려운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吳音이 漢音보다는 과도기적일뿐만 아니라, 流派마다의 傳承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吳音자료 전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吳音系 字音의 주축이 되는 佛典 자료들에 반영된 字音의 重層性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傳承音에 주목하면 소위 吳音·漢音이라는 두 체계 아래에 位相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字音이 현실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 분명하다. 본 자료는 양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해결은 어렵지만, 中世에 있어서의 吳音 傳承의 一端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후대의 『補忘記』등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 파생되는 諸問題를 이러한 시각으로 재검토하고, 位相論적 관점에서 漢字音史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韻鏡類의 일률적인 字音 규정은 현대 漢和辭典의 慣用音과도 연결된다. 漢和辭典의 慣用音 존재는 近世 시기 자음가나즈카이(字音仮名遣い)의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또한 전통적인 吳音은 현대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는 것이 많으며, 사전마다 字音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演繹的인 방법에 의해 발생한 字音과 전통적인 讀誦音(吳音)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것이 慣用音인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검토한 다양한 字音의 位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증 가능한 범위에서 實證的인 文獻 字音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歸納的인 방법이 漢和辭典 字音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21.10.31

심사일: 2021.12.02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 漢字音資料

- 『南北相違集』, 上野氏個人藏 元祿12年(1699) 序刊木版本, 景印本
『南北相違抄』, 東寺觀智院藏本, 江戸中期
『南北相違抄』, 善通寺本, 江戸中期 이후?
『南北相違抄』, 京都大学図書館藏本, 江戸中期
『南北相違抄』, 東京国立博物館藏本, 1800
『九條家本法華經音』, 平安末期, 古典保存會 景印本, 1936
『西教寺本法華經音義』, 1365, 萩原義雄(1990)의 翻字本文
『西教寺本法華經略音』, 1365, 萩原義雄(1990)의 翻字本文
『心空本法華經音訓』, 室町初期,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心空本法華經音義』, 1649,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法華經文字声韻音訓篇集 快倫本(上/中/下)』, 1636,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西來寺藏 法華經文字声韻音訓篇集 (快倫・慶長十三年刊本)』, 1608, 景印本
『法華經音義 快倫編』, 1653,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法華經音義』, 作者未詳, 1654,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淨土三經字音考』, 1773,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類聚名義抄』國立國會圖書館藏本
觀應, 『補忘記』, 國立國語研究所藏本, 1695
觀應, 『補忘記』, 早稻田大学図書館藏本, 1687
宗淵, 『法華經山家本』, 早稻田大学図書館藏本, 1835
宗淵, 『法華經山家本裏書』, 景印復刻, 1980
日遠, 『法華經隨音句』, 1634, 中田祝夫(1971)『日遠著法華經隨音句』, 景印本
日相, 『法華經日相本』, 1854, 梅本正雄(1970), 『日相本法華經開結』, 景印本
日相, 『法華經音義補闕』, 1698, 兜木正亨(1972)『法華音義類聚 坤』, 景印本

■ 韻鏡類 등

- 本居宣長, 『字音假字用格』, 1776
毛利貞齋, 『韻鏡名乘字大全』, 1685
文雄, 『磨光韻鏡』, 1744
文雄, 『三音正譌』, 早稻田大学図書館藏本, 1752
藤原直養, 『韻鏡藤氏傳』, 筑波大学図書館藏本, 1776
河合元, 『韻鏡速成』, 筑波大学図書館藏本, 1795

太田全齋, 『漢吳音圖』, 早稻田大学図書館藏本, 1815
大矢透, 『隋唐音圖』, 1850, 勉誠社文庫41 影印, 1978
関根為宝, 『音韻假字格』, 筑波大学図書館藏本, 1863
太宰春台, 『倭讀要領』, 早稻田大学図書館藏本, 1728

兜木正亨, 『法華版經の研究』, 兜木正亨著作集 第1卷, 大東出版社, 1982
小倉肇, 『日本吳音研究』, 新典社, 1995
高松政雄, 『日本漢字音の研究』, 風間書房, 1982
二戸麻砂彦, 『節用文字の音注研究』, 汲古書院, 2015
沼本克明, 『日本漢字音の歴史』, 東京堂出版, 1986
_____,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汲古書院, 1997
橋本凝胤, 「南都北嶺字音の相違に就きて」, 『仏教教理史の研究』, 全国書房, 1944
湯沢質幸, 「第4章 宋音」, 『唐音の研究』, 勉誠社, 1987

宋在漢, 「日本 近世 시기 法華經字音學에 있어서의 韻書 인용과 淸濁 變容의 문제-唇音 全淸·次淸字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이경철, 「日本漢字音의 字音形에 나타나는 拍의 關與에 대해서」, 『日本語學研究』 25, 2009
石山裕慈, 「中世以降の「シウ(シユウ)」「シユ」の吳音形をめぐって」『国語語彙史の研究』 37, 2018
上野和昭, 「資料紹介『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會『論集』XI,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会(早稲田大学), 2016
大石麻衣 外, 「『南北相違集(南北相違抄)』『補忘記』元禄版 字音關係項目對照資料」,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會『論集』XI,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会(早稲田大学), 2016
佐々木勇, 「眞福寺藏『八名普密陀羅尼經』鎌倉中期点」『訓点語と訓点資料』 83, 1990
松本光隆, 「東寺觀智院藏南北相違抄」『訓点語と訓点資料』 67, 1982

WEB版新纂浄土宗大辞典 <http://jodoshuzensho.jp/daijiten>
教育部異體字字典(대만) <https://dict.variants.moe.edu.tw>

A aspect of Kana-notation in 『南北相違集(Nambokusouisyū)』

Song, Jae-han

This paper discussed the transmission of 'Go-on' from the Chinese characters of 『南北相違集(Nambokusouisyū)』 which records the differences between sects of Buddhist pronunciation in the Middle and Modern Period of Japan. In recent discussions, the author pointed out that Go-on's characteristic "multilayer" is important because of the "transformation"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sect to sect except during the acceptance period of Middle Chinese. Comparing th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the notice of 『南北相違集(Nambokusouisyū)』 with Buddhist scriptures and 『韻鏡(Yunjing)』,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of the characters in Grade I and Grade III is the mixing of sectarian long and short notes. This can be thought of as a result of the acceptance and transmission of the common rhyme nasal rhyme ending in various sec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rade III, the reading sound maintains a long sound, while in 『韻鏡(Yunjing)』, the short sound is often defined as Go-on because of the long sound of Chinese characters. Along with the mixing of long and short sounds, there are characters that do not match characters that are not consistent on 「清濁(Sei-Daku)」 with middle chinese. Such examples are often found in Buddhist scriptures, different sectarian legends, and are often found in 『補忘記(Bumōki)』. The 『南北相違集(Nambokusouisyū)』 shows the transformation of the phonetic sounds that occurred during the settlement of Go-on, which can be understood to have been determined by sects and by the vocabulary of sutras. This form of notation is not systematic, but rather sporadic or biased. This material shows a part of transmission of Go-on in the Middle and Modern Period, a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history of Chinese characters from a topological point of view.

Key Words : Nambokusouisyū, Nambokusouisyō, Bumōki, transformation, status of Sects, transmission of Go-on

